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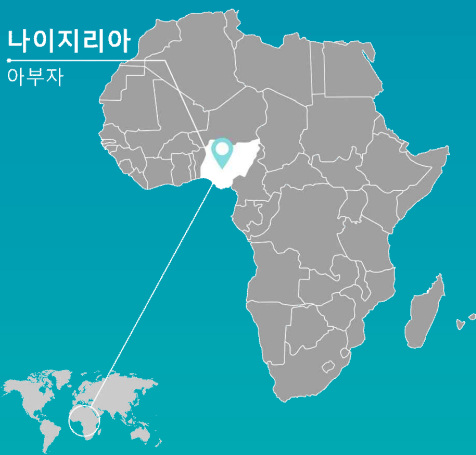
## 나이지리아

Federal Republic of Nigeria









2020년10월28일 | 책임조사역(G3) 박지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나이지리아  
아부자



## 일반개황

<b>면적</b> 924천 km <sup>2</sup> 	<b>인구</b> 2.06억 명 (2020 <sup>f</sup> )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실리추구 
<b>GDP</b> 4,430억 달러 (2020 <sup>f</sup> ) 	<b>1인당GDP</b> 2,149 달러 (2020 <sup>f</sup> ) 	<b>통화단위</b> Naira (N) 	<b>환율(U\$기준)</b> 378.40 (2020 <sup>f</sup> ) 

-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카메룬(동남), 차드(동), 니제르(북), 베냉(서)과 국경을 접하고 한반도의 4.1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한 아프리카 최대의 인구대국임.
- 아프리카 최대 에너지 부국(원유: 세계 11위, 천연가스: 세계 10위)으로 2000~15년 평균 7.4%의 고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유가 하락 및 산유량 감소에 따른 석유 수출 둔화와 비석유 부문의 성장 부진으로 2016년 역성장 이후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관리 수준을 초과하는 10%대를 지속하고 있음.
-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풍부한 자원 및 내수시장, 정보통신업 등 일부 산업의 빠른 성장세 등을 고려해볼 때 성장잠재력이 크나 열악한 인프라, 고급인력 부족, 취약한 거버넌스, 만연한 부정부패, 부족·종교 간 갈등 및 이에 따른 치안 불안 등은 비석유 부문으로의 산업다각화에 걸림돌임.
- 무함마두 부하리 현 대통령은 2019년 재선에 성공하여 2023년까지 집권할 예정이나,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코로나19 발발에 따라 가중된 생활고 및 최근의 대규모 시위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는 잠재 요인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0. 2. 22 수교 (북한과는 1976. 6. 25)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협정('82), 해운협정('90), 투자증진·보호협정('99), 문화·교육협력협정('13)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2,121,967	917,850	759,592	합성수지, 기타석유화학제품, 철강재용기 및 체인, 석유제품
수입	500,438	1,047,562	726,037	천연가스, 원유, 동제품, 우라늄

**해외직접투자현황(2020.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45건, 303,009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1.6	0.8	1.9	2.2	-4.3
소비자물가상승률	15.7	16.5	12.1	11.4	12.9
재정수지/GDP	-4.0	-5.4	-4.3	-4.8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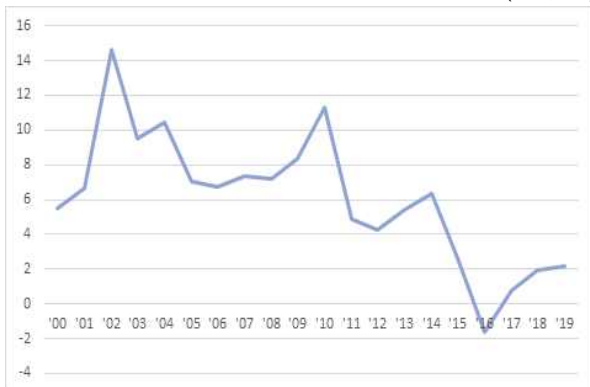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0.

### 유가 하락, 산유량 감소에 따른 석유 부문 성장 둔화 및 비석유 부문의 성장 부진 지속

- 나이지리아는 2019년 말 기준<sup>1)</sup> 원유 매장량 세계 11위(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1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0위(역내 1위)의 아프리카 최대 자원 부국으로 석유 부문 성장에 힘입어 2000~15년 평균 7.4%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갔으나, 유가 하락 및 산유량 감소에 따른 석유 부문 수출 둔화와 비석유 부문의 성장 부진으로 2016년에는 25년 만에 경제가 역성장(-1.6%)한 후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경제는 저유가에도 원유 생산량 증대 및 비석유 부문 성장으로 2.2% 성장하였으나, 동시에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되고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음.
- 나이지리아는 2019년 기준 상품수출의 83.8%, 재정수입의 54.1%<sup>2)</sup>를 원유·가스 생산에 의존하는 등 전통적인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국제유가 및 산유량 변동 등에 취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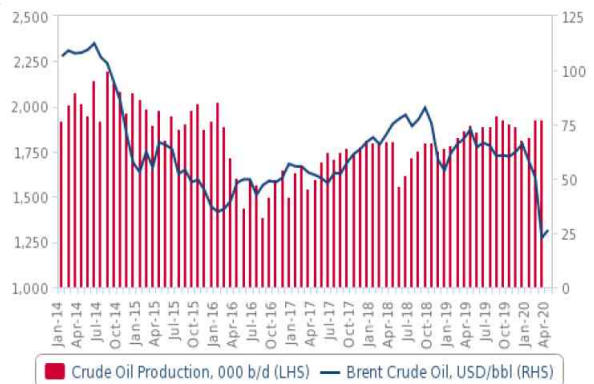
연도별 경제성장률(2000~19년)

(단위: %)



자료: IMF

나이지리아 원유 생산량 및 유가 추이(2014~20.4월)



자료: Fitch Solutions

1)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 2020.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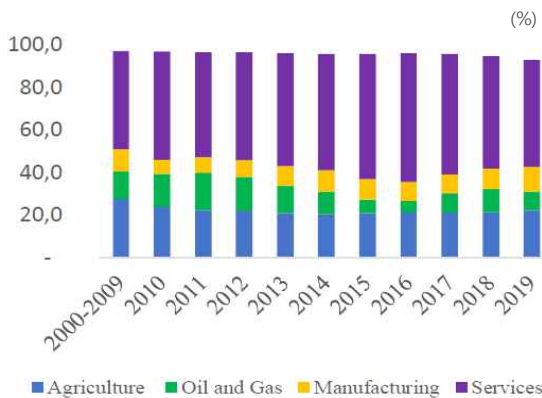
2) IMF, Request for Purchase under the Rapid Financing Instrument, 2020.4월

## 국내경제

### 민간소비 위축에 따라 구매력 약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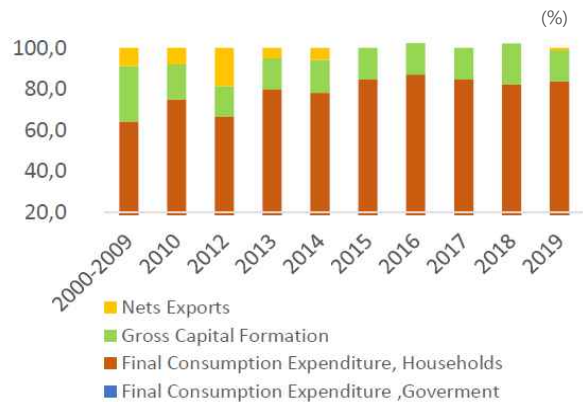
- AfDB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의 불황 및 높은 실업률(23% 이상)로 민간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10%대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되어, 중산층(1,860만 명)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음.

GDP 구성요소(공급측면)



자료: AfDB<sup>3)</sup>

GDP 구성요소(수요측면)



자료: AfDB<sup>3)</sup>

### 국제유가 약세 및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역성장 전망

- 국제유가 약세 지속,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유 수출수요 감소 및 비거주자(특히, 미국·유럽 거주자) 송금\* 유입 감소, 민간 소득 감소(특히 비공식 경제활동 종사자)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2020년 경제는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기준 비거주자 송금은 243억 달러로 아프리카 내 규모가 가장 크며, 하위 중소득국 중 6번째로 규모가 큼<sup>4)</sup>

< 기관별 나이지리아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구 분	IMF(10월)	세계은행(6월)	AfDB(5월)	EIU(10월)	Fitch Solutions(8월)	IHS Markit(9월)
2020년	-4.3	-3.2	-4.4	-3.5	-6.0%	-3.1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sup>5)</sup>

3) AfDB, Nigeria – Country Strategy Paper 2020-2024, 2020.5월.

4) Ratha, D., Migration and Remittances: Recent Developments and Outlook, World Bank, 2019.

5)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10월; 세계은행 Global Economic Prospect, 2020.6월; AfDB Program: Nigeria: COVID-19 Response Support Program(C19RSP), 2020.5월; EIU Data Tool, 2020년 10월 19일 데이터 추출; Fitch Solutions Nigeria Country Risk Report, 2020.8월; IHS Markit Nigeria Country/Territory Report, 2020.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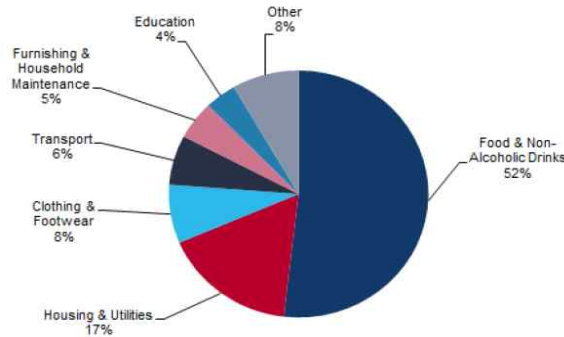
## 국내경제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관리 수준을 지속 초과 중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변동환율제 도입 후 나이이라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5년 9.0%에서 2016년 15.7%로 상승한 후 두 자릿수를 지속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과 함께 통화(나이이라) 가치 하락(유가 하락-신흥국 통화 비선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내 식량 자급률 및 현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곡창 지대인 중부 지역에서의 부족 간 갈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소비자물가지수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식료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됨.

\* 옥수수 수입 금지 등 식량 수입 규제 강화, 식량 밀수 차단을 위한 국경 봉쇄

<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요소 (%) >



자료: Fitch Solutions (원자료: 나이지리아 통계청)

### 코로나19 발발 및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 승인, 재정수지 적자 확대 전망

- 원유수입이 전체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3월 OPEC+ 감산 합의 실패(이후 합의 兪)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 이후의 유가 약세 지속으로 재정수입은 급감하는 반면, 코로나19 대응(의료·보건지원, 경기 부양,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부하리 대통령은 이러한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고자 7월 기준 2020년 예산안에서 2,160억 나이이라 증가한 10조 8,108억 나이이라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였음. 이로써 2020년 재정적자 규모가 기존 2조 1,700억 나이이라에서 5조 3,650억 나이이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6)

\* 수정 예산안에서 유가는 배럴당 57달러에서 25달러로, 하루 생산량은 218만 배럴에서 194만 배럴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원유수출 수익도 기존 예상치인 1조 140억 나이이라에서 4,224억 나이이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6) EMERICs, 이슈트렌드 '나이지리아, 재정 악화 속 자금조달 방안 모색', 20.07.17자.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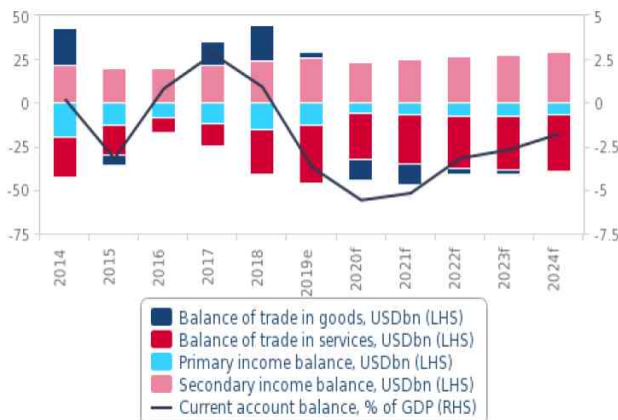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상수지	2,722	10,399	3,878	-17,016	-10,232
경상수지/GDP	0.7	2.8	1.0	-3.8	-2.3
상품수지	-536	13,148	20,467	2,868	-4,847
상품수출	34,704	45,817	61,221	64,978	39,061
상품수입	35,240	32,669	40,754	62,110	43,908
외환보유액	24,981	37,223	40,510	36,021	28,964
총외채	45,702	96,600	115,900	126,400	129,824
총외채잔액/GDP	11.3	25.7	29.1	28.2	29.3
D.S.R.	13.8	18.7	16.1	20.3	45.3

자료: IMF 및 EIU

### 원유수출액 및 해외거주자 송금액 감소 등으로 총수출액 큰 폭 감소 예상

- 2019년 경상수지는 송유관 폭발사고 등으로 인한 산유량 불안정으로 수출 증가세가 더딘 가운데 상품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적자 전환하였음.
- 2020년 총수출(상품수출+서비스수출+본원소득수취)은 주요 수출품인 석유 수출액 급감(수출수요 감소, 유가 약세)과 더불어 주요 외화소득원인 해외거주자 송금 축소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38.9%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GDP 대비 연도별 경상수지 및 전망치



자료: Fitch Solutions

연도별 경상수지 추이

(GDP 대비 비중)



자료: EIU

## 대외거래

### 2020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19년 대비 축소 전망

- 2020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총수출액 감소를 코로나19에 따른 교역 감소 및 정부의 수입 규제 정책 등에 따른 상품수입 감소가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 3.8%에서 2.3%로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능력

### 총수출액 및 외환보유액 모두 감소로 외채 관련 지표 악화 전망

- 단기외채는 2019년 말 248.9억 달러에서 2020년 말 247.9억 달러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 말 외환보유액\*은 외화소득원(석유수출 수입, 비거주자 송금, 포트폴리오 투자\*\* 등) 감소로 2019년 말(360억 달러)보다 크게 감소한 29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전년(69.1%) 대비 증가(85.6%)할 것으로 예상됨.

\* 외환보유액 추이(억 달러): '16년 249.8 → '17년 372.2 → '18년 405.1 → '19년 360.2 → '20. 1분기 316.3 → '20. 2분기 337.1 (자료: IMF)

\*\* 포트폴리오 순투자액 추이(억 달러): '16년 17 → '17년 85 → '18년 -23 → '19년 90 → '20년<sup>P</sup> -24 → '21년<sup>P</sup> 79 (자료: IMF)

- 또한, 총수출 급감으로 D.S.R.은 2019년 20.3%에서 2020년 45.3%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174.9%에서 293.7%로 상승하는 등 일부 외채 관련 지표가 전년 대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상반기 유가 급락 및 이후의 약세로 2020년 재정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국제기구(IMF, AfDB, WB 등)의 코로나19 대응자금 지원으로 단기유동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대부분 상환의무가 있는 긴급대출로 유동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주요 국제기구의 나이지리아 앞 코로나19 대응자금 지원현황 >

IMF	· 4월 28일 코로나19 사태 및 유가 급락에 따른 경제적 충격 대응을 위해 신속금융(Rapid Financing Instrument)을 통한 34억 달러(대출) 지급 승인
AfDB	· 6월 5일 정부의 코로나19 팬더믹 감시·대응 역할 강화, 노동자·기업 앞 경제적 충격 완충, 사회보장시스템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긴급대응제도(COVID-19 Rapid Response Facility)를 통한 2억 8,850만 달러(대출) 지급 승인
WB	· 8월 7일 코로나19 예방·감지·대응을 위해 1억 1,428만 달러* 지급 승인 * 1억 달러(IDA, 대출), 1,428만 달러(팬더믹 긴급자금제도(Pandemic Emergency Financing Facility), 무상)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7) 나이지리아는 중소득국가로 분류되므로 금리 0%의 신속차관제도(Rapid Credit Facility)가 아닌 금리 1%의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 대상

## 외채상환능력

### 공적채무는 관리 가능한 규모이나 정부수입 대비 높은 이자비중은 채무상환의 주요 위험요인

- 공적외채는 GDP 대비 20%대 수준으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외채규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한편, 재정수입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아 정부의 채무 관리가 필요함.
  - \* 공적외채<sup>8)</sup>(GDP 대비 %) 추이: '16년 476억 달러(11.5%) → '17년 585억 달러(15.6%) → '18년 656억 달러(16.5%) → '19년 700억 달러(15.6%) → '20년<sup>9)</sup> 745억 달러(16.8%) → '21년<sup>9)</sup> 811억 달러(16.3%) (자료: IMF)
- 특히, 석유 산업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수입 구조 다변화가 긴요한 것으로 분석됨.
- IMF는 2020년 4월 보고서<sup>9)</sup>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채무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정부수입 대비 이자 지급 비중(2019년 58%)이 높아 유동성 관련 지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적채무는 저성장/본원적 재정적자 확대에 취약하며, 높은 이자율은 원리금상환능력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남.
- 다만, 공적채무는 대부분 중장기 채무이며 현지 통화로 발행되어 실질환율 변동위험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동 분석의 기본 가정(Baseline Projection)은 나이지리아 공적채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비중은 낮은 수준(2025년까지 GDP의 36% 수준 유지)을 유지하여 상환가능한 수준(sustainable)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중기적으로 평균 GDP의 9.2% 수준의 자금조달(financing needs)이 필요하고, 우발채무가 추가적인 재정위험 요인임으로 분석함.

8) 보증 외채(guaranteed external debt) 제외

9) IMF, Request for Purchase Under the Rapid Financing Instrument ANNEX I.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2020.4.2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구조적취약성

### 비석유 부문으로의 산업다각화가 요구되나 인프라·인적자원 등 한계 직면

- 나이지리아 경제는 석유 부문이 2019년 기준 상품수출의 83.8%, 재정수입의 54.1%를 차지하는 등 석유·가스 단일 산업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며, 국제 원유시장 동향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임.
- 현재 국제유가 약세 지속 가능성, OPEC+의 추가 감산 합의 가능성, 무장단체들의 원유 생산·수송시설 추가 테러 가능성, 다국적기업들의 석유·가스 관련 투자 연기·축소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며, 이는 석유·가스 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지닌 나이지리아의 경제 불안정성을 직·간접적으로 증폭시키고 있음.
- 정부의 장기간에 걸친 비석유 부문으로의 산업 다변화 노력에도 열악한 인프라(전력, 기술, 금융 등), 고급 인력 부족, 영세기업 위주의 공급시장 형성<sup>10)</sup>,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제품(대체품) 조달 용이, 정책 불확실성 등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만성적인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중간재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제조업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임.

## 성장잠재력

### 주변 경쟁국들에 비해 사업환경 열위

- 나이지리아<sup>11)</sup>는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서 141개국 중 116위(2018년 115/140위)를 차지하며 가나(111위), 세네갈(114위) 등 주변 서아프리카국들보다 사업환경이 열위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세부항목(중분류) 중 제도(128위), 인프라(130위), 거시경제 안정성(130위), 보건(127위), 기술(129위), 금융 시스템(131위)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제도(institution) 부문 중 테러 발생빈도 항목은 141개국 중 140위(순위가 낮을수록 위험)를 차지하는 등 정정불안은 나이지리아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임.
- 한편, 인프라 부문도 도로(도로의 질, 130위), 전력(전기 접근율, 117위), 식수(안전하지 않은 식수의 노출된 인구 비율 132위, 물 공급의 안정성 138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AfDB에 따르면 도로 인프라 관련 19.7만 km 도로 중 18%만이 포장도로이며, 전력 인프라 관련 국가 전력 접근율은 약 45%(도시 55%, 지방 36%)로 매우 낮은 수준임. 또한, 전체 가구의 90.8%가 오염된 식수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적인 위생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임.

10) 2017년 나이지리아 통계청과 중소·중견기업진흥청이 공동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나이지리아 내 중소기업이 약 4,150만 개 존재하며 이 중 99.8%가 영세기업이며 0.2%만이 중소중견기업임. 영세기업(단독 또는 가족경영)이 나이지리아 노동인구의 86.1%를 차지하며 기업당 1.37명을 고용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은 39.5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11)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경영여건에서는 나이지리아가 190개국 중 131위, 코트디부아르가 110위, 가나가 118위, 세네갈이 123위 차지  
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성장잠재력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대 자원 부국

- 나이지리아는 2019년 말 매장량 기준(BP) 원유 370억 배럴(세계 점유율 2.1%, 11위), 천연가스 5.4조 입방미터(세계 점유율 2.7%, 10위)를 보유한 아프리카 최대 자원 부국임. 2019년 일일 원유생산량은 210.9만 배럴(세계 점유율 2.2%)로 2016년 생산량 감소 이후 완만히 회복\* 중임.

\* 연도별 일일 생산량(만 배럴): 2015년 220.1 → 2016년 190.0 → 2017년 196.9 → 2018년 200.7 → 2019년 210.9

- 정부는 정제 석유 수입(내수용)에 따른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부가가치 및 전·후방 연쇄효과를 높이고자 현지 내 정유소 설립 및 현지 소비를 장려하고 있음. 단적으로 2020년 말 완공 예정인 정유공장을 추가 완공하게 될 경우 일평균 65만 배럴을 정유할 것으로 기대되며, 7,0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정제 석유 제품 수입 감소로 외화 유출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천연가스 생산량은 493억 입방미터(세계 점유율 1.2%, 17위)로 생산성이 높은 국가들과 비교 시 성장 잠재력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천연가스 생산 및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상위 30개국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

(단위: 조 입방미터)

순위	국가명	1999	2009	2018	2019(점유율)
1	러시아	32.9	34.0	38.0	38.0(19.1%)
2	이란	23.6	28.0	32.0	32.0(16.1%)
3	카타르	11.5	26.2	24.7	24.7(12.4%)
4	투르크메니스탄	2.6	8.2	19.5	19.5(9.8%)
5	미국	4.5	7.4	12.9	12.9(6.5%)
6	중국	1.4	2.9	6.4	8.4(4.2%)
7	베네수엘라	4.6	5.6	6.3	6.3(3.2%)
8	사우디아라비아	5.8	7.4	5.9	6.0(3.0%)
9	아랍에미리트	5.8	5.9	5.9	5.9(3.0%)
<b>10</b>	<b>나이지리아</b>	<b>3.3</b>	<b>5.0</b>	<b>5.4</b>	<b>5.4(2.7%)</b>
11	알제리	4.4	4.3	4.3	4.3(2.2%)
12	이라크	3.1	3.0	3.5	3.5(1.8%)
13	아제르바이잔	1.0	1.0	2.1	2.8(1.4%)
14	카자흐스탄	2.0	2.0	2.7	2.7(1.3%)
15	호주	1.6	2.8	2.4	2.4(1.2%)
16	이집트	1.2	2.1	2.1	2.1(1.1%)
17	캐나다	1.6	1.6	1.9	2.0(1.0%)
18	쿠웨이트	1.4	1.7	1.7	1.7(0.9%)
19	노르웨이	1.2	2.0	1.6	1.5(0.8%)
20	리비아	1.2	1.5	1.4	1.4(0.7%)
21	인도네시아	2.7	3.1	2.8	1.4(0.7%)
22	인도	0.6	1.1	1.3	1.3(0.7%)
23	우즈베키스탄	1.2	1.3	1.2	1.2(0.6%)
24	미얀마	0.3	0.3	1.2	1.2(0.6%)
25	우크라이나	0.8	0.7	1.1	1.1(0.5%)
26	말레이시아	1.1	1.1	0.9	0.9(0.5%)
27	오만	0.8	0.5	0.7	0.7(0.3%)
28	베트남	0.2	0.7	0.6	0.6(0.3%)
29	이스라엘	^	0.1	0.4	0.5(0.2%)
30	파키스탄	0.4	0.6	0.4	0.4(0.2%)

주 1. ^: 0.05 미만을 표기

2.      나이지리아보다 매장량은 적지만 생산량이 더 많은 국가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

상위 30개국 천연가스 생산량

(단위: 조 입방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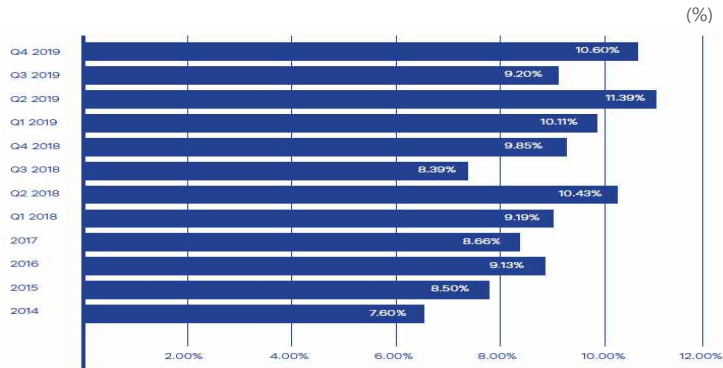
순위	국가명	2015	2016	2017	2018	2019(점유율)
1	미국	740.3	727.4	746.2	835.9	920.9(23.1%)
2	러시아	584.4	589.3	635.6	669.1	679.0(17.0%)
3	이란	183.5	199.3	219.5	238.3	244.2(6.1%)
4	카타르	174.9	173.6	168.6	176.5	178.1(4.5%)
5	중국	135.7	137.9	149.2	161.5	177.6(4.5%)
6	캐나다	160.8	171.8	175.6	179.0	173.1(4.3%)
7	호주	76.0	96.4	112.8	130.1	153.5(3.8%)
8	노르웨이	116.2	115.9	123.2	121.3	114.4(2.9%)
9	사우디아라비아	99.2	105.3	109.3	112.1	113.6(2.8%)
10	알제리	81.4	91.4	93.0	93.8	86.2(2.2%)
11	말레이시아	76.8	76.7	78.5	77.3	78.8(2.0%)
12	인도네시아	76.2	75.1	72.7	72.8	67.5(1.7%)
13	이집트	42.6	40.3	48.8	58.6	64.9(1.6%)
14	투르크메니스탄	65.9	63.2	58.7	61.5	63.2(1.6%)
15	아랍에미리트	58.7	60.3	62.4	61.4	62.5(1.6%)
16	우즈베키스탄	53.6	53.1	53.4	57.2	56.3(1.4%)
<b>17</b>	<b>나이지리아</b>	<b>47.6</b>	<b>42.6</b>	<b>47.2</b>	<b>48.3</b>	<b>49.3(1.2%)</b>
18	아르헨티나	35.5	37.3	37.1	39.4	41.6(1.0%)
19	영국	40.7	41.7	41.9	40.5	39.6(1.0%)
20	오만	30.7	31.5	32.3	36.0	36.3(0.9%)
21	태국	37.5	37.3	35.9	34.7	35.8(0.9%)
22	트리니다드투바고	36.0	31.3	31.9	34.0	34.6(0.9%)
23	멕시코	47.9	43.7	38.3	35.2	34.0(0.9%)
24	파키스탄	35.0	34.7	34.7	34.2	33.9(0.8%)
25	방글라데시	25.9	26.5	26.6	26.6	28.7(0.7%)
26	네덜란드	45.9	44.3	38.5	32.3	28.1(0.7%)
27	인도	28.1	26.6	27.7	27.5	26.9(0.7%)
28	베네수엘라	36.1	37.2	38.6	31.6	26.5(0.7%)
29	브라질	23.8	24.1	27.2	25.2	25.8(0.6%)
30	아제르바이잔	18.8	18.3	17.8	19.0	24.3(0.6%)

## 성장잠재력

### 정부의 육성 의지 및 풍부한 인구(젊은 층)로 정보통신업 성장성 확보

-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sup>12)</sup>에 따르면, 통신산업은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디지털 경제 및 비석유 부문으로의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020년 1월 기준 사용(active) 중인 핸드폰 가입자는 약 1억 8,600만 명, 광대역 가입자는 7,350만 명임에도 광대역 보급률은 38.5%에 그쳐 인터넷 잠재 수요자\*(이용자)가 여전히 풍부함.
  - \* 나이지리아는 2019년 기준 2억 96만 명(EIU)을 보유한 아프리카 최대 인구대국으로 정보통신 관련 소비시장이 클 뿐 아니라, 인구 구성(중위연령 18.1세, UNDP)을 고려해볼 때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육성을 통한 디지털 경제로의 성장잠재력도 큼.

GDP 대비 통신업 비중



자료: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업 자체의 성장성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성장성도 높은바, 연방통신 디지털경제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8개 부문으로 구성된 디지털 경제정책 및 전략(2020~30년)을 수립하였음.

\* UNCTAD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전자상거래 소비는 2025년 7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 '디지털 경제정책 및 전략(2020~30년)' 부문별 주요 내용 >

규제 수립	· ICT 및 디지털 부문의 효과적 규제 수립
디지털 사용능력 및 기술 축진	· 10년 내 95%까지 디지털 문맹 퇴치율(literacy) 달성을 위한 디지털 및 관련 교육 실시
물리적(solid) 인프라 구축	· 4년 내 70%까지 광대역 보급을 위한 유선 및 모바일 인프라 구축 * 나이지리아 전역에 광대역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120,000km의 광섬유 설치 필요
서비스 인프라 구축	· e-정부 서비스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 전자상거래 지원
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 디지털 환경 구축 · 영세·중소·중견기업의 혁신적 발전 지원, ICT 및 연관 혁신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핀테크
소프트 인프라	· 데이터·개인정보 보호, 사이버위협 식별 및 대응 · 일반인들의 디지털 기술 사용과 디지털 경제 참여에 대한 안정감·자신감 증진 지원
디지털 사회 및 신기술	· 디지털 경제 발전과 일반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들과의 연계 · 스타트업의 신기술 개발 및 제품 출시 관련 멘토링 · 금융서비스 소외자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이용) 제고(financial inclusion)
나이지리아 콘텐츠 개발 및 채택	· 정부 지원사업 고용 시, 디지털 기술 보유 나이지리아인들 우대

자료: 나이지리아 연방통신디지털경제부

## 정책성과

### 2.3조 나이라 규모의 국가경제지속가능성계획(ESP) 추진

- 부통령실에서 권고한 총 2.3조 나이라 규모의 '국가경제지속가능성계획'(Nigeria Economic Sustainability Plan: ESP)을 2020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승인하였음.
- 동 계획의 주요 목적은 ①기업 파산 방지 및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제 활성화, ②농업, 시설관리, 건축(주택) 등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일자리 유지 또는 창출 지원, ③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인프라(도로, 교량, 태양광, 통신기술) 투자, ④제조업 육성과 현지 생산 및 현지 생산물(재화·서비스) 소비 독려, ⑤빈민·취약계층 보호임.

#### < 국가경제지속가능성계획의 주요 내용 >

실물경제 부문	· 농업, 농산물 가공, 식량안보, 주택 건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 경제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와 정책 시행
재정·통화 부문	· 재정수입 극대화와 정부지출 최적화를 위한 단계적 방안 수립
이행 부문	· 각 부처는 장관주재의 위원회를 구성, ESP 프로젝트 이행단계를 관리·감독 · 경제지속위원회(the Economic Sustainability Committee)는 각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ESP 이행을 총괄하며 이에 대해 대통령 앞 보고

자료: 나이지리아 예산청

## 정책성과

### 통화(나이러) 가치의 단계적 평가절하 노력으로 단일환율제 추진

- 2016년 고정환율제도 폐지 후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실제로는 다중환율제도<sup>13)</sup>를 취하고 있음. 정부의 개입으로 공식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나이러 가치를 3년 만에 3월 달러당 306.5에서 360.5으로 절하시켰으며, 8월 379.5로 추가 절하조치를 단행하였음. 이는 유가 하락 및 외환보유액 감소에 따른 환율 상승압력 가중 및 정부의 환율 단일화 노력(공식비공식 환율 격차 축소)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국제기구, 국제신용평가사, 리서치기관 등은 2020년 말 환율이 달러당 360~470나이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기관별 2020년 말 기준 달러당 나이러 환율 전망치 >

(단위: 달러당 나이러)

AfDB(5월)	EIU(10월)	Fitch Solutions(8월)	IHS Markit(9월)
360	378.4	475	397.69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sup>14)</sup>

- 현재 나이지리아에는 5가지 이상의 환율이 존재하여 시장참여자와 국내외 투자자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는 환율 안정성 제고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환율 단일화를 추진 중으로, 최근의 공식환율 평가절하로 각종 환율 간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음.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9.1자 암시장 환율은 달러당 435나이러를 기록하였음.

< 나이지리아 내 주요 환율 종류 >

구분	대상자	달러당 나이러	
		코로나19 前	'20.4월 기준
공식환율(고시환율)	정부, 원유수입	306.5	360
투자자·수출업체용 환율(IEFX)	투자자, 수출업자, 국내외 시장참여자	358~366	388
2차 소매시장	현지기업, 제조업체	335~360	388
2차 도매시장	대부분 은행을 통한 대기업	335~360	388
환전, 암시장, 여행	제한 없음	358~369	388

자료: IMF

13) 주나이지리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2015년 유가 하락 대응을 위해 통화 통제를 도입 후 다중환율정책을 유지 중  
 14) AfDB Program: Nigeria: COVID-19 Response Support Program(C19RSP), 5월; EIU Country Report, 10월; Fitch Solutions Nigeria Country Risk Report, 8월; IHS Markit Nigeria Country/Territory Report, 9월.

## 정치동향

### 대선 전후로 여·야간 갈등 심화

- 나이지리아는 종교·부족·지역 간 갈등이 만연하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2019년 2월 대선에서 무함마두 부하리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임기 2023년)하였으나, 대선 직후 선거 결과에 대한 야당의 불복 선언과 지지자들 간 국지적 충돌로 치안이 크게 악화된 바 있음.
- 세계은행의 세계거버넌스지수(WGI) 중 정치적 불안정성 및 정치적 동기를 가진 범죄(테러 포함)를 측정하는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부문은 2018년 기준 최하위권(202위/211개국)을 기록함.

### 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대한 정부 대응조치로 정치·사회 불안정성 확대 우려

- 높은 빈곤율(총 인구의 40%)<sup>15)</sup>과 실업률(20~30%)<sup>16)</sup>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생활고 및 통행금지 등의 정부대응 조치는 취약계층인 비공식 경제활동 종사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혀, 정치적 불안정성 및 사회 불만을 증폭시키는 잠재 원인이 되고 있음.

### '#End SARS' 구호 아래 21년만에 최대규모의 시위 발생

- 2017년부터 연방경찰 소속 대강도특수부대인 Special Anti-Robbery Squad(SARS)\*의 인권침해, 금품 갈취, 살해, 고문, 여성 용의자 강간 등의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지며 SARS 해체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함.
  - \* 1992년 설치된 연방경찰의 수사정보부서의 특수기관으로 무장강도, 납치 등의 강력범죄를 담당
- 이후, 2020년 10월 초 SARS 부대원으로 알려진 한 경찰이 델타(Delta)주에서 민간인을 살해\*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End SARS' 구호 아래 반(反)경찰 시위가 라고스, 아부자 등 전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며 민주화 이후 21년 만에 최대규모의 시위로 격화\*\*됨.

\* 시위대는 경찰이 10월 10일 오고보모쇼(Ogbomoso)시에서 시위 도중 행군을 하던 한 남성을 사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음.

\*\* 부하리 대통령은 23일 동 시위로 인해 모두 69명(민간인 51명, 경찰 11명, 군인 7명)이 사망함을 인정함.

- 정부는 10월 11일 SARS를 전격 해체하여 부대원들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전략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시위대는 SARS 부대원들을 타 부대로 배치하는 것 외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시위를 지속 하였음. 이에 20일 라고스 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16시부터 24시간 전면적 통행금지를 실시하였음.
- 그러나 20일 라고스 주 내 시위대는 통행금지 명령을 어기고 비무장 시위를 지속하였고, 군과 경찰이 라고스 레키 틀게이트 일대에서 시위대 최소 12명을 사살(국제엠네스티 추정)한 사건이 벌어지며, 시위는 이후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과격시위로 격화되며, 건물(법원, 쇼핑몰, 교도소, 경찰서, 은행, 상점 등) 방화 및 훼손, 폭행, 약탈 등이 발생함. 현재 시위대는 경찰조직 개혁뿐 아니라 국정 전반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세 불안과 사회 혼란은 당분간 확대<sup>17)</sup>될 것으로 우려됨.

15)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의 '2019년 나이지리아 빈곤 및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의 40.1%(8,290만명)이 빈곤층으로, 1인당 연간 소비지출이 국가 빈곤선(137,430나이라, 약 353달러)에 미달

16) 나이지리아 정부가 발간한 국가경제지속가능성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은 2018년 말 23.1%(약 2,090만 명)에서, 코로나19에 대응 실패 시 2020년 말에는 33.6%(약 3,940만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 한편, 나이지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기준 실업률은 27.1%임

17) 시위대 공격으로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10월 19일 에도(Edo) 주 소재 교도소에서 1,900여명의 수감자가 탈출하였으며, 22일 라고스 시 Ikoyi 지역 교도소에서 방화 이후 수감자 일부가 도주하였음.

## 사회동향

### 높은 실업률, 빈곤률, 빈부격차에 따른 치안 불안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악순환 반복

- 국제경제평화연구소(IEP)의 2020 세계평화지수에서 나이지리아가 163개국 중 147위(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4개국 중 4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고질적인 지역 내 갈등과 안전·안보 관련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임. 일례로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보코 하람이 북동지역에서 2019년에만 640명의 시민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됨.
-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높은 실업률(특히 젊은 층), 빈곤율, 빈부격차, 부패, 부진한 경제성장 등의 사회·경제문제가 경범죄뿐 아니라 무장괴한·강도들에 의한 살해·납치 등의 중범죄를 직·간접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는 가운데, Niger Delta Avengers의 석유생산시설 공격, 중부 지역의 부족 간 충돌은 주요 산업(석유·농업)의 생산활동 위축 및 인프라·생산시설 파괴로 경제적 타격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치안을 악화시켜 경기침체와 치안 악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구조임.

### 거버넌스 개선 및 부패 척결 시급

- 세계은행의 세계거버넌스지수(WGI)에서 공공서비스의 질, 정치적 중립성, 정부의 정책 수립·이행 능력 등을 측정하는 정부의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부문은 2018년 기준 209개국 중 178위를, 사익 추구를 위한 공권력 및 일부 계층(엘리트 등)의 권한 행사 정도를 측정하는 부패통제는 209개국 중 181위를 차지하는 등 거버넌스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도 나이지리아는 180개국 중 하위권(공동 146위)을 차지하는 등 부패 척결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 중부 벨트 내 기독교 농민과 무슬림 유목민 간 갈등 심각

- 나이지리아 주요 농경 지역인 중부 벨트(Middle Belt)에서 기독교 농민과 무슬림 유목민 간 무력충돌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 간 갈등은 토지 점유 관련 경쟁 심화와 물 부족 문제와 결부되면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2018년부터 대규모 학살 수준의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들 간 보복은 더욱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장한 민병대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음. IHS Markit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농민과 유목민 간 갈등으로 4천여 명이 사망하고 최소 25만 명이 추방된 것으로 추정됨.
- 사실상 Fulani족 무슬림 유목민이 기독교 농경민을 주로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Fulani족 출신인 부하리 대통령은 Fulani족의 공격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아 정부 태도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고 있음.
- 한편, 나이지리아 곡창 지역인 중부 벨트 내 갈등은 지역 내 치안 악화뿐 아니라 현지 농산물 생산량 감소·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과 식량난으로 이어져 나이지리아 전역에 걸쳐 사회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사회동향

### 보코 하람, ISWAP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활동은 북부 지역 치안 불안의 주요 원인

-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의 보코 하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 중인 대표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며, 이외에도 IS 서아프리카 지부(ISWAP) 및 각종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들이 북부 지역에서 활동 중임.
- 이들은(특히 ISWAP) 북동부 지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자 나이지리아 정부군을 공격하고, 매복하여 무기를 파기 또는 탈취하는 등 정부군과 무력 대치 중으로 이 지역의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태임.
- 한편, 나이지리아는 이슬람 테러 조직들로부터의 치안 강화를 위해 인근국인 카메룬, 차드, 니제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으나, 인접국들로부터의 대테러 지원은 나이지리아로부터의 지원 부족과 일방적인 국경 폐쇄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주요 석유·가스 생산지인 남부 Niger Delta 지역은 테러, 납치, 생산시설 공격 등에 노출

- 나이지리아 원유의 대부분이 매장되어 있는 남부 Niger Delta 지역 역시 무장단체 등에 의한 석유·가스 생산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 테러, 납치, 도난 등의 범죄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외국인 피랍 사건<sup>18)</sup>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Niger Delta Avengers(NDA)는 Niger Delta 지역에서 활동 중인 반군 무장단체로 2016년 송유관 폭파 등 원유생산시설 파괴로 원유생산에 대한 불안정성을 증폭시킨 바 있음. NDA는 여전히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으나 실제 테러 활동은 감소한 상태로, 단기간 내 2016년과 같은 대규모 공격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18) IHS Markit에 따르면 2019년 11월 미국 정부는 납치 위험 증가로 미국 시민들에게 Niger Delta에 있는 석유생산 5개 주에 대한 여행금지를 권고하였음. 한편, 2020년 7월 크로스리버 주에서 4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유괴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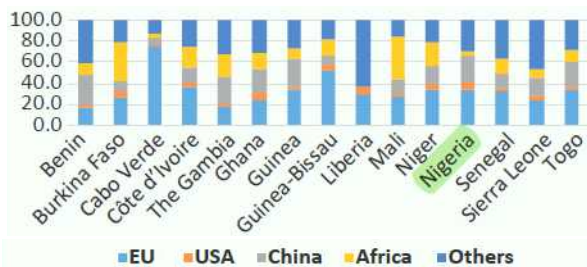


## 국제관계

###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등을 통한 역내 교역 강화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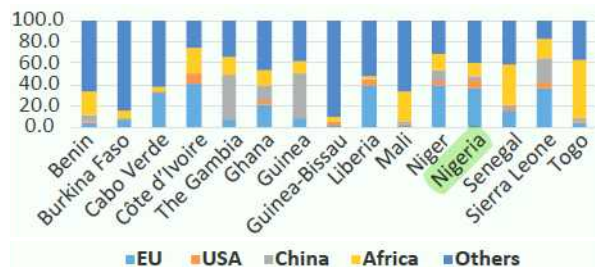
- 나이지리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자 2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의 핵심국(ECOWAS GDP의 65~75% 차지, AfDB)이나, 보호무역주의 정책(현지 생산 장려, 자국산업 보호), 역외 수출(원유)에 편중된 무역구조, 주변국과의 교통 인프라 연결의 열악함 등의 이유로 지역공동체 내 교역은 제한됨.
- 또한, 부하리 대통령은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ECOWAS 공동화폐 '에코'(Eco) 도입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합의된 절차 미준수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9월 ECOWAS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에코 출범 연기를 발표하였음.

2018년 서아프리카 국가별 교역 현황(수입기준, %)



자료: AfDB<sup>19)</sup>

2018년 서아프리카 국가별 교역 현황(수출기준, %)



자료: AfDB<sup>16)</sup>

- 한편, 2019년 7월 7일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sup>20)</sup> 가입 서명으로 대륙 차원(인구 12억 명의 단일시장 형성)의 경제통합을 위한 중장기적 시너지가 기대되나, 일부 전문가들은 나이지리아가 경쟁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등)에 비해 투자환경<sup>21)</sup>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AfCFTA 가입이 오히려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함.
- 반면, 쌀 밀반입 등을 저지하기 위해 2019년 8월 베냉을 시작으로 10월부터 국경지대에서의 물자 교역이 모두 금지된 상태로 접경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음.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을 고려 시, 정부는 2020년 중 국경 간 (상품)무역 재개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됨.

### 역외국과의 교역에 집중

- 나이지리아는 역내보다는 역외국들과의 교역에 치중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주요 교역국인 미국, 유럽뿐 아니라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2015년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현지의 다수 인프라 사업에 참여(차관 제공, 용역·시공) 중임.

< 2019년 기준 나이지리아 주요 상품교역국 >

주요 상품수출국	미국(29.5%)	인도(9.1%)	브라질(7.1%)	스페인(6.5%)
주요 상품수입국	중국(28.4%)	미국(12.7%)	네덜란드(8.8%)	인도(6.7%)

자료: EIU Data Tool, 2020.10.19.

19) AfDB, West Africa Economic Outlook 2020, 2020.7월.

20) AfCFTA는 2019년 5월 30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현재 아프리카연합(AU)의 55개 회원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서명함. AfCFTA는 2020년 7월부터 수출입 상품의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등 본격적으로 출범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연기되어 2021년 1월에서야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1)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 순위(2019.10월 발표) : 190개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84위, 가나 118위, 나이지리아 131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외채상환태도

### 2020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율 미미

- 2020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나이지리아에 대한 원리금 잔액은 24.75억 달러(단기 1.52억 달러, 중장기 23.23억 달러)이며, 이 중 0.37%에 해당하는 920만 달러(단기 20만 달러, 중장기 900만 달러)만이 연체 중으로 연체율은 미미한 수준임.

### 주요 ECA들은 나이지리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단기, 중·장기 모두 인수 가능

- 2020년 10월 27일 현재 미 수은(US EXIM), 영국 UKEF, 독일 HERMES 모두 나이지리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 모두 인수 가능함.
- 단, HERMES는 중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 또는 기타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 프로젝트에 한해 건별 심사 후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1986년 이후 총 5차례에 걸친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경험

- 나이지리아는 1986년, 1989년, 1991년, 2000년, 2005년 총 5차례에 걸쳐 리스케줄링 및 외채탕감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현재 모두 전액 상환하였음.
- 파리클럽<sup>22)</sup>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나이지리아의 파리클럽 회원국 및 관련 기관(ECA, 원조청 등) 앞 채무액은 총 6.45억 달러로, 이중 ODA 채무액이 대부분(6.37억 달러)을 차지함.
- 나이지리아 정부는 9월 말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대응을 위한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앞 채무상환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파악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20.10)	6등급(2019.10)
Moody's	B2 (2020.04)	B2 (2019.12)
Fitch	B (2020.04)	B+ (2019.12)

### 코로나19 확산 및 유가 하락으로 Fitch는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

- OECD는 2016년 저유가에 따른 거시경제지표 악화 등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강등한 뒤 유지 중임. 다만, 석유산업에 편중된 협소한 정부수입원, 치안 불안 지속, FDI 감소, 공적채무 규모 증가는 추후 등급 유지의 주요 위협요인이 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 4월 6일 Fitch는 국제유가 급락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대외자금 조달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나이지리아의 정부채권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하향 조정하였음.
- Moody's는 정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GDP의 10% 미만인 점,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인 점 등을 고려하여 나이지리아에 대한 정부채권신용등급을 2017년 11월 B1에서 B2로 강등한 후 유지 중임. 다만, 불안정한 재정수입 기반, 취약한 제도적 기반 및 거버넌스, 외채상환 부담 급증 등을 고려하여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 중임.

- 나이지리아 경제는 국제유가 하락 및 산유량 감소로 2016년 역성장 이후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발발 및 상반기 유가 급락과 원유 수출수요 감소 등으로 2020년에는 -3%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및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중앙은행 목표관리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국제원유 시장 침체로 핵심 산업인 석유 부문의 수입 급감이 불가피한 가운데, 재정적자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상수지 적자는 큰 폭의 수입 감소로 오히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외환보유액은 석유수출 수입, 비거주자 송금, 외국인투자의 감소로 29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Fitch는 이러한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나이지리아의 정부채권신용등급을 4월에 한 단계 강등한 바 있음.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인구·자원 대국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나 취약한 거버넌스, 만연한 부정부패, 열악한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종교 간 갈등, 치안 불안은 경제성장과 비석유 부문으로의 산업다각화에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로 내재된 주요 정치·사회적 갈등요인인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활고 가중과 최근의 #End SARS 반정부 시위사태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확산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됨.